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학습방법

김 지 원
(세종대학교)

Kim, Ji-won. (2006). Problems in teaching English and effective learning method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3), 167-186.

We live in a global village that requires a language with a genuinely global statu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English has clearly emerged as the lingua franca owing to both past British political imperialism and the more recent superpower status of the United States. Further contributing to world domin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is the fact that the computer and Internet sprang from the US.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are destined to learn English at least to some extent in order to live in this global village. For the last two decades, one of the most mistaken ideas a number of Korean English teachers have had is that speaking and listening are the primary forms of language, while reading and writing are secondary. In fact, reading is regarded as a skill of much consequence to us since it provides us with access to a huge quantity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f which at least 80% is written in English. Writing, too, deserves a great deal of attention because we are increasingly called upon to use standard English expressions. As diligent learners of English, we had better not forget the place accorded to language not only as a medium for exchange and constructing information but as a tool for thinking. So we should try to think in English to the point where we have thinking-in-English as a habit, thereby leading to increased familiarity with the language. Such familiarity entails, above all, possessing a command of English.

[globalization/universal language/general English/effective learning methods/thinking-in-English, 세계화/세계어/대학교양영어/효율적 학습방법/영어로 생각하기]

I. 들어가며

뉴밀레니엄의 원세기(元世紀)를 맞은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변모해가고 있다. 교통 및 통신 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인해 국가·민족간의 경계는 갈수록 희미해진다.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세계는 종래의 무역시장에서 직거래 장소로 급격히 탈바꿈해간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는 점차 하나의 작은 ‘지구촌’(global village)을 형성한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세계인 모두가 하나같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세계어’(universal language)의 출현이다.

20세기 들어 영어가 각종 국제 행사에서 꾸준히 공식어로 지정되더니 후반 이후에는 사실상의 세계어로 발돋움했다. 이로써 영어는 오늘날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도구가 되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반미적인 북한에서도 영어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정규과목으로까지 책정해 놓았다. 근래에는 영어만을 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영어마을’의 잇따른 개장과 함께 영어의 공용어 문제가 심심찮게 화두로 떠오르기도 한다. 또한 영어 정복을 위한 각종 도서와 시청각 매체의 광고가 매일같이 스펀 메일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과거 수십 년 동안 국내외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수많은 중요한 연구와 책자들은 한결같이 최단 기간에 최소의 노력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이론이나 교수방법도 모든 학습자를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기술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영어 학습에 내포된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잘 조성된 이론이 없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인데다 학습자 각자마다 처한 조건과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편의와 효과를 개선하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언어학·심리학과 같은 과학적 학문과는 달리 영어교육은 하나의 기술이자 기교이기에 이론적·철학적 기반 위에서 꾸준한 연마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영어가 세계어로서의 입지를 사실상 굳히게 된 원인을 규명해본다. 이어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온 영어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영어 학습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II. 세계어로서의 영어

사실 세계어란 바벨 탑¹⁾ 이후 인간이 늘 동경해온 이상이자 꿈으로서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무수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²⁾ 비록 인공언어로서의 세계어 만들기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세계어 역할을 하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 부각되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하여 명실공히 국제적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인들이 그들이 정복한 민족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힘이 더 컸던 것이다. 나중에 로마 군대가 약화되었을 때 라틴어는 고사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천 년간이나 교육 분야에서 국제어로 남아있었다. 이는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로마 가톨릭교의 종교적 힘 덕분이었다. 19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는 불어가 미약하나마 국제적 언어로서의 대접을 받았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영어가 사실상 세계어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산업, 과학, 기술, 문화, 외교의 언어가 되었다.

세계 언어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강한 힘의 바탕이 없으면 어떤 언어도 국제적 소통 매체로 발전할 수는 없다. 1950년대에 진정한 국제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개념은 냉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채 희미하고 막연한 이론적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었다. 50년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영어는 정치적·문화적 현실로서 뚜렷이 존재한다. 데이비드 크리스탈(David Crystal, 2003)에 따르면, 영어가 오늘날 국제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19세기 말경 절정에 이르렀던 영국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과 20세기의 주도적인 경제적 힘으로서 미국의 출현”(p. 59)이라는 두 가지 요인의 결과이다. 영국의 정치적 제국주의는 19세기 동안에 영어를 세계 각지로 내보냈다. 한편 20세기 동안에 국제 언어로서 영어의 지위는 새로운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를 통하여 유지되고 증진되었다. 영국의 영토와 미국의 달러 뒤에는 언제나 영어라는 존재가 있었다.

컴퓨터의 일상적 활용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 또한 영어가 국제 언어로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컴퓨

1)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전설은 성서 설화의 일부라는 위치 때문에 특별히 신뢰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성서적인 의미에서도 바벨이 ‘저주’나 ‘치벌’로서의 다언어주의를 도입했다는 말에는 근거가 없다. 창세기 10장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언어들은 이미 바벨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그러기에 대홍수 이후 노아(Noah)의 세 아들 셈(Shem)과 함(Ham)과 야벳(Japheth)의 후손들은 그들이 분포된 지방과 언어 별로 나열되고 있다.

2) 세계어를 위한 시도로 만들어진 인공언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언어는 ‘에스페란토어’였다.

터는 애초부터 거의 전적으로 미국적인 것이었다. 주요 하드웨어와 널리 유용한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비록 컴퓨터의 언어가 자연언어와 똑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프로그래머들의 모국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 모국어란 주로 영어였다. 컴퓨터 작동 체계에서 주로 쓰이던 영어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웹상에서도 강력한 언어로 부각하였다. 최숙희 외 2인(2006)은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영어의 힘”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영어 활용 능력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p. 240)고 강조한다.

그 결과 이제 세계어로서 영어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는 현재 영어가 새로운 세계의 제왕 언어가 된 시점에 살고 있다. 물론 미국이 언젠가 재정적·군사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좋은 싫든 간에 영어가 사실상 세계어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영어가 짧은 기간에 세계어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국어 사용 국가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³⁾ 또한 영어의 사용자수도 영어의 국제화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숫자는 약 3억 5천만 명, 영어를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 말하는 인구는 대략 10억 명 정도이다 (Crystal, 2003, p. 68). 이는 거의 13억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어 사용자에게 비해 결코 많은 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숫자가 모국어 사용자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영어가 어느 일부 국가에 속한다는 선입견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크다 하겠다. 이제 세계어로서의 영어는 더 이상 영국·미국과 같은 나라의 모국어 사용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문학자 박영의(2003)는 자신의 저서 *FLEFE 영어 3000*의 서문에서 “영어는 이제 무국적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같다”(p. 14)고 역설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⁴⁾ 많은 분야에서 생활 패턴이 급변해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

3)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일부 카리브해 국가 등 10여개국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 스페인어는 오히려 20여개국의 최대 모국어 사용국수를 갖고 있다 (Crystal, 2003, pp. 3-4).

4)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Etforecasts(2004)가 발표한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수 예상」(Internet Users Forecast by Country)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인구는 2000년도에 약 4억 2천만 명이었고, 2005년에는 10억 8천 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인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예상외로 엄청난 숫자다. 통계청(2005)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인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근 시점은 2000년인데, 당시 1786만 여명이었다. 또한 성일호(2000)도 자신의 *인터넷 영어학습 사이트 길라잡이* 서문에서 “2000년 말 현재 16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p. 4)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터넷에는 무수한 정보를 담은 자료들이 올려져있다. 물론 그 자료들 대부분은 영어로 적혀 있다. 실제로 웹상에 떠있는 정보들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영문 자료일 것으로 추정된다.⁵⁾ 따라서 “영어 문맹에게 인터넷의 바다는 곧 역사학의 바다”(박경일, 2003, p. 54)일 따름이다. 결국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안고 태어난 숙명인 것이다.

결국 영어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이다. 물론 오늘날의 영어 교육과 학습의 목표가 세계화 및 인터넷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넷은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초기 과정부터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게 하여 외국어 학습의 성취동기와 흥미를 갖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영어를 가르치는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는 영어학습 자체만을 강조하는 기능적 목표만 주로 추구하여 왔다. 자연히 배운 영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진정한 목적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일호(2000)는 “학습자들이 졸업 후 대하게 될 글로벌 사회의 적응을 위해 보다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은 영어수업의 주변적인 목표로 경시되어 왔다”(p. 5)고 비판한다. 더 이상 영어학습자들이 단순한 수동적 정보 수혜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III. 영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최근에 영문학자인 박경일(2002)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국제경쟁력 있는 학문의 영어화/외국어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 원인을 “영어교육의 부실 때문”(p. 53)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의 역사는 창립 100년이 넘는 학교가 여럿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100년 이상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팽창이 있었다. 물론 오늘날 영어학습의 평균 성공률은 각종 학습 매

볼 때,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는 전체 4800만 명 중 대략 3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여겨진다.

5) 손경환과 김일홍(2001)은 자신들의 공저인 *인터넷 무역 실무영어* 서문에서 “인터넷을 통해 띄워놓은 자료들의 거의 80퍼센트 정도가 영어로 되어있다”(p. 3)고 주장하는가 하면, 성일호(2000) 또한 영어가 “인터넷 자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 공용어로 훌쩍 성장해버렸다”(p. 4)고 역설한다. 한편 박경일(2003)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인터넷 정보의 아마도 90% 이상을 점유하는 영어 문헌”(p. 10)이라고 언급한다.

체의 편리한 활용으로 인해 부모 세대들 보다는 아마 훨씬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인 면에서 뚜렷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영어 교육이 현저히 발전하지 못한 중대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학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표면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형적인 구조상의 차이와 내면적으로 감추어진 논리적 구조상의 차이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져온 영어교육은 약 15-20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따라 영어의 음운 체계부터 익혀나가는 언어습득의 관행을 간과하고 아예 처음부터 8품사의 기능 분석에만 온 정력과 시간을 소비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품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품사 차이를 예써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영어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 중심의 암기식 교육이나 교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말하기 중심으로 일대 전환을 했다.

오늘날 중등학교를 포함하여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가장 그릇된 병폐 하나는 말하기 중심교육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영어교육의 한 사례로 그간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져온 교양영어 교육을 살펴보자. 대학의 교양영어는 이미 언어습관이 굳어버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삼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외국어 습득 과정이 어린이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교양영어 교육은 8품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암기식 문법 교육에서는 탈피한 듯했으나 기존의 주입식 영어교육의 틀을 과감히 깨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교양영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대략 60년 전인 해방 직후부터이다. 이때부터 거의 50여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대학에서 교양영어를 가르치는 데 사용한 교재는 주로 영어수필과 단편소설들로 이루어졌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에는 단골로 들어가는 메뉴들이 있었다. 먼저 에세이 종류로는 Ernest Hemingway의 "Advice to a Young Man", Lafcadio Hearn의 "On Reading", Arnold Toynbee의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Young Generation", Henry Miller의 "First Love", Helen Keller의 "Three Days to See", Albert Einstein의 "I Believe" 등이 있었다. 또한 단편소설로는 Hemingway의 "The Killers", Somerset Maugham의 "The Luncheon", Erskine Caldwell의 "The Strawberry Season", S. I. Kishor의 "Appointment with Love"

등이 들어 있었다.

그 결과 대학의 교양영어 강의실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인이나 학자들의 글을 읽고 번역하는 이른바 독해식 수업이 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었다. 내국인 교수가 영어 문장을 한행 한행씩 읽고 번역해 나가면 학생들은 행간에 뻑뻑이 받아 적었다. 물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어김없이 번역 위주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행간에 필기한 번역문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시험지에 옮겨 적으면 그만이었다. 누가 더 정확하게 교수가 해준 번역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옮겨 적느냐 하는 것이 높은 학점을 받는 요령의 관건이었다. 따라서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시험을 위해 한시적으로 습득한 독해력은 물론이고 어휘력까지도 일시에 기억에서 지워지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물론 이러한 주입식 교양영어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2학기 내지 4학기를 공부한다 해도 영어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읽기 능력, 즉 독해력이 다소간 향상되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반면에 쓰기에 해당하는 영작문 실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문제점이라면 말하기와 듣기였다. 20세기 후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온갖 국면에 걸쳐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더욱더 빈번해졌다.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중·고교 6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외국인을 만나면 벅어리가 되고 말았다. 입시 위주로 문법 공부에 치중한 결과였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학뿐이었으나 정작 주입식 영어강독은 여전히 학생들의 굳게 닫힌 입을 열게 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국내 대학들은 본격적으로 지구촌 시대가 열리는 새천년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선택한 방안 중 하나가 원어민을 대거 교수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교양영어 교육을 담당시킨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때는 교양영어를 원어민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마치 대학가의 유행인양 번져나갔다. 이로써 학생들은 점차 영어회화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학생들의 말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필시 원어민 교육이 갖는 긍정적 측면이었다. 그러나 원어민을 통한 교양영어 교육에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병폐가 훨씬 더 컸다. 외국인만 보면 말문이 막혀버린 고질병은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묵과해서는 안 되었다. 가까스로 말문이 트인 대신에 읽기와 쓰기의 능력이 아예 정지해 버린 것이다. 입으로 하는 가벼운 일상회화는 대충 구사한다고 하지만 읽기를 통한 이해력과 표현을 위한 작문의 기교는 형편없이 저하되었다.

우리는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터득했

다고 자부하는 구어체 영어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까맣게 잊혀지고 만다. 이에 반해 낱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 영어 표현과 우리말 표현의 차이를 파악하고 나서 구사하는 문어체 영어는 비교적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런데도 대학에서의 교양영어 교육은 이해력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일에 너무 무관심 해왔다. 말하기와 듣기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영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이제는 독해 및 작문이 오히려 더 큰 부담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신세대 대학생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강의실의 분위기를 보면 회화나 언어실습에 비해 오히려 강독과 작문이 훨씬 더 벽찬 듯하다. 모든 부문에 걸쳐 능숙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사회에 학생들을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교양영어 교실에서 가벼운 회화 위주의 교육방식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품담고 있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정보들이 영어로 쏟아져 나오고 의사 전달을 영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문독해와 영작문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오랜 시행착오 끝에 지금에 와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원어면 회화 2시간에, 내국인 강독 및 작문 2시간을 병행할 때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골고루 연마할 때 비로소 절름발이가 아닌 균형 있고 완벽한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IV. 바람직한 영어 학습 방법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 행위는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교사와 그가 사용하는 자료와 학생간의 삼자 관계 위에서 실시되는 언어교육은 삶이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할 때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경험 세계와 동떨어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학습은 결코 성공적일 수 없다.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보다 넓은 사회적 정황이 교사와 학습자간, 학습자들간의 상호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학습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가정”(Lier, 2001, p. 6) 위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인격체로서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에 대해 존경스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교사는 학습에 적합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리고 개별 학습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한 요구에 민감히 대응함으

로써 학습자들의 교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들의 학습 기회를 적극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 영어가 사실상 세계어로서 부각했다는 사실과 현대 사회에서 영어실력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이따금씩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언급은 학습자로 하여금 교과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간간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동시에 교사는 다양한 교수 행위와 기술을 개발하여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가장 효율적인 교수 행위를 위해서는 어떤 가르치기 단계를 따를 것인가, 어떤 보조 교구와 자료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료는 주 자료와 보조 자료로 구분되는데, 주 자료는 흔히 교재를 가리킨다. 보조 자료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인데,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컴퓨터를 포함한 시청각 매체일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영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통적인 인쇄 자료보다도 시청각 자료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에게 특별한 전율과 함께 실제적인 것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는 “신뢰감”(authenticity)을 불어넣어 주기 마련인데, 이것 자체가 학습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하나의 유인책”(Sherman, 2003, p. 2)이 된다. 특히 비디오는 해당 언어의 문화로 들어가는 창문이자 오늘날 언어학습의 필수적 요소로서 종종 교실에서 높은 기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한다.

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이 하나 있다.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대개는 영어로 말하기라거나 듣기라거나 쓰기라거나 하는 언어적 국면을 제한해서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영어를 잘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읽고 이해하고 글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reading & writing skills)과 함께 듣고 이해하고 말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listening & speaking skills)까지 한꺼번에 함양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 현장에서 보았듯이 영어의 학습과정에서 어느 한 국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풍선 효과의 폐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에만 역점을 두기 보다는 여러 국면 모두를 중시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처럼 보인다. 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언어 습득의 국면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말하기

같은 언어로 말한다고 해서 모든 말하기가 다 똑같은 언어행위는 아니다. 먼저 말하기라고 하면 집중할구는 일상회화를 떠올릴 것이다. 일상적인 영어회화는 어린이가 말을 배우듯이 시간을 두고 반복 연습하면 통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특수 분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중학교 3학년 내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휘나 표현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어휘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점에는 22,000단어, 33,000단어를 실은 영어책이 넘쳐나고, 실제로 적지 않은 학생들은 그런 책을 붙잡고 시름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단어들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정작 실질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적절하게 재활용하고 재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영어회화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것 중 하나는 “Yes”와 “No”의 구별이다. 부정 의문문에 대답할 때 한국어의 “예”가 영어에서는 “No,” 영어의 “Yes”가 한국어에서는 “아니오”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누이 들어온 내용이지만 정작 실제 대화에 들어가면 헷갈릴 때가 많다. 반복해서 꾸준히 연습해보는 것이 비결이겠지만 일단 주의할 점은 질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라고 생각하면 무난하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말로 바꾸어 계산을 하려다보니 틀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Do you smoke?”라고 질문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중학생이라면, 아니 초등학교생까지도 이내 “No, I don’t.”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Oh, don’t you smoke?”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 그만 “Yes.”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인들이 곤잘 오해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에는 “I don’t know.”가 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난폭하게 들리기 쉽다. “모르겠습니다.”라는 정중한 영어 표현으로는 “I’m afraid I don’t (know).” 또는 “I’m afraid not.”이 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도 종종 일어난다. 길을 가다가 외국인으로부터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near here?”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그곳의 지리적 여건에 친숙해 있을 때에는 별 문제 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잘 모른다고 할 때 생겨난다. 물론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 식의 우리말 표현에 힘입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I don’t know well.”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견 “well”이란 단어를 “잘”이라고 옮겨놓은 영한사전에만 의존한 결과 빚어진 그릇된 표현이다. “I don’t know exactly.”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말하기에는 일상회화 외에도 입사시험에서 주로 하는 면접, 즉 인터뷰가 있다.

특히 영어 면접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질문자가 “What would you do, if ...?”라고 물으면 대답은 반드시 “I would ...” 또는 “I’d ...”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질 때를 제외하고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는 “Yes.” 나 “No.”로 끝내기보다는 “Yes, I do.”라든지 “No, I’m not.”과 같이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여 문장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간단한 질문에 대한 가벼운 응답으로는 “Yes, sir.” 또는 “No, ma’am.”만으로도 족하다.

또한 취업을 위한 영어 인터뷰에서는 지원 배경과 업무 경험뿐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리더십, 더 나아가 직업관과 인생관까지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영어 인터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흔한 “Introduce yourself in brief.”라는 질문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이나 현재의 상황에 적절히 맞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구체적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가 하면 말하기에는 토론, 즉 디스커션이 있다. 영어권에서 토론은 문화라고 할 만큼 일상화되어 있다. 토론에서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 would say you’re probably right, but ...”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피력하기에 적합한 문구다. 상대를 존중해줄 때 자신의 의견도 비로소 설득력을 얻기 마련이다.

이밖에도 일정 규모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발표, 즉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 프레젠테이션을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노하우를 익힐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IT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의 장점을 살려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교실에서의 말하기 학습은 특성상 개별 학습보다는 조별 학습이 더욱 능률적이다. 물론 조 편성은 학습 내용에 따라 2인(pair work) 혹은 3인 이상 소수그룹(group work)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조 편성을 할 때 능력별로 고려하여 일률적인 방식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습 내용에 따라서는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 편성할 때 더욱더 바람직한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조 편성을 하든지 간에 말하기에서 조별 학습의 장점으로는 모든 학생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실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목적 외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과 협동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준다”(Doff, 2002, p. 132)는 부수적 효과를 들 수 있다.

2. 듣기

듣기는 말하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언어행위다. 말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듣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 청취력을 향상시키려면 먼저 영어 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는 바로 청취의 기본인 음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청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치 문법을 통하여 영어의 어순과 구문을 이해하듯이 음운 체계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귀로 익혀야 한다. 특히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발음할 때 발생하는 음의 여러 가지 현상, 즉 동화(assimilation), 연음(liaison), 탈락(elision), 축약(contraction) 등에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영어 특유의 리듬, 즉 강세와 억양에 친숙해지는 것이 영어 청취의 가장 빠르고 능률적인 지름길이다. 영어 청취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대략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발음을 들을 때에는 절대로 그 유사음을 우리말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영어는 영어로서만 듣고 익혀야 한다.

둘째, 영문의 내용을 영어로, 그리고 어순대로 이해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라. 영어의 어순을 한국어의 어순대로 애써 바꾸려는 시도는 신속한 청취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셋째, 받아쓰기(dictation) 연습을 꾸준히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최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영문을 귀에 익히는 것이다.

넷째, 긴 대화나 지문을 들을 때에는 특정 낱말에 얽매이기보다는 전체 내용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개별적인 단어의 뜻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이해가 더욱더 중요하다.

청취 훈련을 위한 어학실습실(language laboratory)의 사용에 관해서는 언어교육의 효과 면에서 오랫동안 상반된 두 견해가 대립해 왔다.⁶⁾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언어 청취의 지름길로 적극 장려할 만한 방법이라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하게 들어가는 비용·노력·시간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는 빈약한, 허울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어학실습실이 오류가 없는 필수불가결한 교수 방법을 제공한다고 굳게 믿는 한편, 후자는 교사의 주관적인 교수 방법을 저해할 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정한다. 그러나 어학실습실을 통한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한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전제되어

6) 최초의 어학 실습실은 196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사용되어 곧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대략 1965년부터 대부분 국가의 학교와 대학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 도구가 되었으며, 초창기 사용 때부터 학습효과를 놓고 매우 열정적인 찬반 논란에 휩싸여왔다(Strevens, 1977, p. 159).

야 한다. 어학실습실의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은 필경 교사가 기계 작동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다. 어학 교육에서, 특히 청취력 향상을 위해 어학실습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먼저 교사 스스로 그 자신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실습실을 가장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을 직접 마주 보면서 하는 교실 수업과는 달리 어학실습실 수업은 기계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만을 지루하게 들도록 내버려두는 수동적 교수 방법 대신에 듣기와 함께 말하기 훈련도 병행하되 이따금씩 학생 개개인을 지정하여 일대일로 질문함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간단한 퀴즈로 끝을 맺는 것 또한 학습효과를 측정해본다는 본래 취지 외에도 산만하기 쉬운 어학실습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겠다. 어학실습실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재 개발 또한 교사의 몫으로 남는다. 결국 어학실습실을 통해 가장 능률적으로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취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대화와 문장을 듣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의 듣기 능력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테이프 몇 개에 의존하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훈련을 쌓아야 한다.

3. 읽기

빠르고 정확한 영문읽기 기술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사냥이 필수적 일과로 바뀐 요즘 그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듯이,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그것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주제를 갖고 있다. 모든 문장은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고, 모든 말은 주제가 어떨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주제가 없는 말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다소 긴 글이라면 어김없이 주제, 즉 토픽 또는 중심 생각(central idea)이 들어있고, 그 주제를 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단락(paragraphs)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단락은 그 나름대로의 토픽 문장(topic sentence)을 갖는다. 그러나 토픽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자재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중요한 문장 하나를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비근한 예들이 필요하고 상황설명도 부연해야 한다. 수준 높은 영문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 기교가 요구된다.

첫째는, 의미 단위(meaning unit) 찾기다. 의미 단위란 호흡 단위와 같다. 개인마다 호흡의 길이가 다르지만 대개는 의미 단위별로 끊어 읽는다. 이는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우선 한 의미군을 이루는 문구 단위로 끊어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trike, / nearly all the workers / went to back to work / without a new contract.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들자 /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 업무에 복귀했으나 / 새로운 합의는 없었다.)

위 예문에서는 먼저 주어 앞의 부사구 뒤에서, 그 다음에는 긴 주어 뒤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사 뒤의 부사구 앞에서 각각 끊어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직독직해주의다. 읽어 나가면서 바로 이해하는 직독직해 능력이 신속하고 정확한 읽기에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문을 많이 읽되 개별 단어와 표현의 뜻에 얽매이지 말고 문법과 문장 구조를 굳이 따지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영문을 어순대로 읽어나가면서 전체의 뜻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제한적 용법의 규칙을 따르는 종래의 역순 독해 대신에 어순대로 계속 읽어 내려가는 이른바 ‘내림순 독해’는 이해력은 물론이고 읽기 속도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 세간에 번역의 대가로 알려진 안정효(1996)도 아마 내림순 번역을 선호한 듯하다.

그렇다면 어느 긴 문장 속에 뒤섞여 들어간 몇 개의 (서로 연관이 맺어지면서도) 독립된 개념이나 장면은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옮겨야 좋을까?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때로는 짝막한 구나 삽입된 문장이 핵심을 이루는 주문(主文)의 앞이나 뒤나 중간에서 마구 튀어나올 때, 어느 부분을 우리말 문장에서 앞에 내놓고 어떤 부분은 뒤로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 때면 아는 절이나 구나 삽입문을 가릴 것 없이 가능한 한 본디 영어 문장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순서 그대로 옮기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p. 100)

한편 언어학자이자 통번역 전문가인 성백환 교수는 이러한 내림순 번역을 “순차번역”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원리를 언어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직독직해 또는 영어순해라는 이름으로 영어 순서에 따라 번역하는 것을 시도해보고 있으나 순서에 신경 쓴 나머지 너무 어색하거나 또는 부분적인 성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제하고 나서 “만약 순차번역을 규칙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해서 언제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면 번역 속도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다”(성백환, 2000, pp. 121-122)고 주장한다. 성 교수의 순차번역 원리에 따르면, 직독직해는 표면구조가 아니라 심층구조에

서 이루어지는 독해법이라 할 수 있다.

읽기는 시각을 이용해 인지력을 키워나가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작게는 한 낱말의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물론 철자의 동일시나 약자가 아니라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림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 기법을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의를 갖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두뇌를 자극시켜 저절로 토픽 문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해력은 자동적으로 향상된다.

4. 쓰기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국제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지면서 영문쓰기에 대한 관심이 읽기에 못지않게 커져가고 있다. 쓰기에도 말하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주가 있다. 일기, 편지, 보고서, 논문을 비롯하여 기타 등등의 쓰기가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편지 쓰기에는 요즘 폭발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e-mail) 쓰기가 포함된다. 이메일은 아주 간편한 비즈니스 수단이다. 물론 이메일에서도 상대가 고객이거나 사업 파트너라면 철저히 격식을 차려야 할 것이다. 정중하고도 간결한 문장, 이것이 비즈니스 메일의 핵심이다. 처음으로 거래를 트고자 할 때의 회사 소개와 문의 요령, 주문하고 협상할 때에 쓰는 단골 표현, 무례하지 않게 할 말을 포함시키는 항의와 독촉 요령이 또한 있다.

쓰기에서의 기본은 어휘다. 영문쓰기에 능통하려면 영어단어를 많이 숙지해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를 처음 대할 때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종종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기억하고, 그 문법에 맞도록 단어를 나열하면, 올바른 영어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새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 적혀있는 뜻을 마구 베껴서 달달 외우려 든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학습 태도 같아 보이지만 막무가내식 암기는 잘못된 영어 공부의 시작이다. 어휘란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만 유용성을 갖기 때문에 한 단어의 뜻은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결정된다. 그러므로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즉 어떤 용법으로 쓰이느냐를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유익한 방법은 단어를 간결한 문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한 쉬운 예를 들자면, “bus”라는 말을 배울 때에는 “bus=버스”라는 이른바 등가 식으로 단어 하나만을 별도로 외우지 말고, “go to school by bus,” “get on the bus,” “get off the bus,” “take the bus”와 같이 “bus”의 의미가 충분히 나타나는 표현들을 한 단위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유용하다.

영한사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각각의 단어를 고립시켜 놓고 한국말 뜻을 외우게 되면 불완전한 어휘력을 쌓게 된다. 이 어휘력을 바탕으로 쓰기를 할 때 자칫 하면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정작 필요한 영어의 표현을 외우고 연습하는 일은

소홀하기 때문에 결국 머리에는 영어의 표현이 아니라 한국어의 해석만 남게 된다. 그러니 영어를 쓰려고 할 때 마땅한 영어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한국식 영어표현을 쓰게 되어 결국 ‘콩글리쉬(Konglish)’를 만들고 만다. 우리의 ‘콩글리쉬’는 일본의 ‘재팬글리쉬(Japanglish)’ 못지않게 심각한 언어의 고질병이다.

영문쓰기에 정도(正道)란 있을 수 없다. 다만 단문이 아닌 장문, 즉 에세이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차분히 밟아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제(topic)의 결정

영어로 에세이를 쓰려면 우선 무엇을 쓸 것인가 그 주제를 정해야 한다. 글의 대상에 주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들도 주제가 될 수 있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전개하기 위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

2) 윤곽(outline) 그리기

주제가 일단 정해지면 시작은 반드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용어는 에세이 작성에 앞서 종이 또는 컴퓨터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특별한 형식의 제약 없이 한글로든 영어로든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을 말한다. 이 브레인스토밍 후에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에세이의 전체 윤곽을 짜게 된다.

3) 서론의 전개 방법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가리키듯이 첫 문장의 시작이 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론의 전개는 매우 중요하다. 처음 문장의 도입이 매끈하게 이루어지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서론은 대개 일반적인 개념을 전달해주는 ‘도입 문장(opening sentence)’과 글에서 논증해야 할 명제(thesis)로 이루어진다.

4) 본론의 전개 방법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 속에 담긴 내용들이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서론에서 주제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이 나오면, 본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본론은 최소 2-3개 이상의

문단으로 이루어진다. 문단별로 소주제를 갖는 ‘토픽 문장(topic sentence)’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설명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나와야 하고, 문단을 마무리하는 ‘종료 진술(closing statement)’로 끝난다. 그러다 보면 한 문단은 최소한 4개 이상의 문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의 전개 방법

결론이란 지금까지 전개시켜온 글을 마무리 지어 끝맺는 부분이다. 서론에서 주제를 제기한 후, 본론에 와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이다. 결론은 대개 글쓴이의 견해나 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여준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을 새로 끌어들이 글의 의미를 흐리게 하거나 혼동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먼저 ‘종결 문장(concluding sentence)’으로 글 전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최종 코멘트(final comment)’로 끝맺는다.

V. 나오며

오늘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국제무대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에서 영어가 제일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수없이 목격한다. 실제로 다수의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영어의 국제화, 다시 말해서 세계어로서의 영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들은 영어가 이미 어떤 형태의 사회적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사실상의 세계어로 부상하였음을 믿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의 여세가 하도 커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그 국제적 존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세계어로서 영어가 갖는 국제적 지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세계어 역할이라는 영어의 대세론은 작금의 인터넷 시대에 보편타당한 명제로 굳어진 듯하다.

영어의 숙달이란 훌륭한 교사와 교재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7) 예를 들어, David Graddol(1998)은 *영어의 미래(The future of English)*에서 영어의 결정적 역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조만간에 영어의 세계적 추세가 탄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Tom McArthur(1998)는 *영어들(The English languages)*에서 일원론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영어가 궁극적으로는 한 ‘언어족(family of languages)’으로의 단편화로 이어질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역설한다.

다도 먼저 학습자 스스로 영어에 친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친숙함이 결국에는 학습 목적에 적합한 언어 구사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영어와 친숙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생각하기(Thinking-in-English)’이다. 틈틈이 책을 떠나서 혼자 머릿속으로 우리말 대신에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할 때 영어와의 친숙함은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인 영어로 생각하는 언어를 단지 소통과 정보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아니라 생각을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영어는 영어로 설명하는 공부를 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영어식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영영사전이다. 영어단어의 풀이를 한국말로 읽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독해에 차질이 생겨 견잡을 수 없는 ‘콩글리쉬’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영어 단어의 용법(usage)을 찾기 위해 영어로 풀이된 것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능률적이라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오해다. 시간적으로 느린 듯하지만 그것이 곧 정확한 용례를 찾아 고지를 선점하는 거북이 진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는 영어의 구사력이 곧 막강한 무기다. 따라서 자신의 영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시험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영어 능력을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시험 제도에는 TOEFL, TOEIC, G-TELP, TEPS 등이 있다. 물론 이 가운데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시험은 토플이다. 과거에는 토플 같은 시험 점수가 곧 영어실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각종 시험에 대한 요령이 생겨나면서 그런 시험 점수가 살아있는 영어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 쪽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토플을 주관하는 ETS(Education Testing Service)는 그런 문제점의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왔다. 평가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새로운 출제 형식과 문제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쓰기를 포함한 정확한 영어 능력 측정과 테스트 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형식의 CBT(Computer-Based Test) 토플을 시행했다. 그리고 2005년 5월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한 IBT(Internet-Based Test) 출제방식으로 또 한번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앞으로 IBT 토플은 말하기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살아있는 영어를 종합적으로 테스트하게 된다.

IBT 토플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문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토플의 변화는 수많은 예외 규칙을 익히고, 끝없이 암기를 되풀이했던 기존의 영문법 중심의 영어 학습법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영어학습에서 문법을 강조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필요 이상의 강조는 오히려 영어 실력 향상에 있어서 저해 요인

이다. 물론 학습의 첫 단계에서는 문법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문법의 규칙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 표현 연습을 통하여 문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100배 더 빠른 기적의 영어학습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영어 학습 이문서 *7english*를 개발한 도서출판 본영사의 곽종국(2005) 대표는 “교육부 및 전국 27개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들, 267개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98%가 기존 영문법 80%(25개항)의 폐지 또는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래영문법이 얼마나 영어를 오도하였고 얼마나 학습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느냐고 반문한다.

문법으로부터의 해방은 필시 자유의 만각이다. 이제 더 이상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고역이 아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환희다. 영어를 통해 낯선 문화와 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진정 가슴 설레지 않을 수 없다. 영어 덕분에 다른 나라의 문물과 곧 친숙해지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도 이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능통한 영어를 이용하여 상거래에서 어마어마한 재화를 손에 거머쥐는 것 또한 허황된 꿈은 아니다. 전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지구촌에서 펼쳐지는 영어의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영어의 완벽한 구사는 젊은이가 필히 해야 할 도전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종국. (2005). *영어교사 전용사이트 — 폐지되는 영문법 25개항 80%* Retrieved March 10, 2006,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02-02.com/kk.hwp>.
- 박경일. (역). (2002). 학문/문화/국력, 그리고 영어교육. *번역학 연구*, 3(1), 39-58.
- 박경일. (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 영어/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탈이론적 방법론 서설. *번역학 연구*, 4(1), 5-26.
- 박영의. (2003). *FLEFE 영어 3000*. 대전: 도서출판 FLEFE.
- 성백환. (2000). 번역속도 제고와 순차번역. *번역학 연구*, 1(1), 119-144.
- 성일호. (2000). *인터넷 영어학습 사이트 길라잡이*. 서울: 도서출판 동인.
- 손경환, 김일홍. (2001). *인터넷 무역 실무영어*. 서울: 도서출판 브레인하우스.
- 안정효. (1996).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 서울: 현암사.
- 최숙희, 김성현, 김인철. (2006). 영어교육과 정보화 시대. *영어어문교육*, 12(1), 239-256.
- 통계청. (2005).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인구*. Retrieved March 17, 2006, from

-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YC1004&IDTYPE=3.
- Crystal, 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Doff, A. (2002). *Teach English: A training course for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tforecasts. (2004). *Internet users forecast by country*. Retrieved March 17, 2006, from http://www.etforecasts.com/products/ES_intusersv2.htm#list.
- Graddol, D. (1998). *The future of English*. London: The British Council.
- Lier, L. V. (2001). Constraints and resources in classroom talk: Issues of equality and symmetry. In C. N. Candin & N. Mercer (Eds.),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its social context* (pp. 90-107). London: Routledge.
- McArthur, T. (1998). *The English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rman, J. (2003). *Using authentic video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Stevens, P. (1977). *New orientations in the teaching of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College

김지원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3-747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98

Tel: (02) 3408-3112; 011-9007-6411

E-mail: kimj@sejong.ac.kr

Received in July. 2006

Reviewed by Aug. 2006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 2006